

데살로니가전·후서에서 만난 복음

-바울의 종말론-

데살로니가는 A.D.315~316년에 마케도니아 왕 카산더가 세운 도시이고, 자신의 아내이자 알렉산더 대왕의 이복누이 이름을 붙여 데살로니가라고 이름하였다. 이후 B.C.42년에 자유도시(civitas libera)가 되었다.

데살로니가전·후서는 바울의 서신 중에 가장 먼저 쓴 서신인 동시에, 신약성경 27권 중에 제일 먼저 쓰여진 성경이기도 하다. 기록 연대순으로 성경을 편집한다면 데살로니가전·후서가 마태복음보다 앞서 나와야 한다.

데살로니가교회는 A.D.49~50년경에 바울이 제2차 선교여행으로 세워진 교회이다. 고린도가 아가야 지방의 수도라면, 데살로니가는 알렉산더 대왕의 고향인 마케도니아 지방의 수도이다. 이 도시는 로마와 동방을 잇는 주요 도로인 에그나티아 도로(Via Egnatia)에 있는 교통의 중심지요, 마케도니아의 관문이기도 하다. 오늘날 이 도시는 데살로니키이고, 그리스의 두 번째로 중요한 도시이다.

데살로니가전서는 바울이 A.D.51년경에 제 2차 선교 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바울과 실루아노, 디모데가 데살로니가교회에 쓴 서신이다. 실루아노와 실라는 같은 이름이고, ‘실루아노’는 실라를 로마 식으로 표기된 이름으로 탄원하다는 뜻이고, 실라는 아람어로 생각이란 뜻을 갖고 있다. ‘실라’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헬라계 유대인으로 예루살렘교회 출신이다. 그는 예루살렘 공회의 결의사항인

“할례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복음 진리를 안디옥교회에 전달하기 위해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된 사람 중의 한 사람이다. 그는 선지자였고 성경교사였다. 그는 후에 바울의 선교팀에 합류하여 바울과 함께 선교여행을 했다.

수신자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교회이다. ‘교회(ἐκκλησια)’란 헬라어로, ‘밖으로 불러 모으다’는 뜻으로, 세상에서 불러 모아진 ‘성별(聖別)된 모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거룩한 언약 공동체이다(엡 1:22~23; 히 2:12). 교회는 거창한 건물에 교회 이름을 붙인다고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다. 또 그 안에 소속되어 있다고 하여 다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은 연합, 한 몸이란 뜻으로, 바울의 신학사상의 근간이다. 바울 서신에 ‘그리스도 안’이란 단어가 무려 164번이나 나온다. 이는 단지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의 구원을 받는다.”를 넘어서서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뜻이 담겨져 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은 ‘아담 안’과 대조된다. 우리가 아담 안에 있었을 때에는 사망이 왕 노릇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생명이 왕 노릇한다. 이를 종합하면 ‘그리스도 안’은 예수님과 생명의 관계,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로운 관계를 말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공급받아야 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성도는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하고 예수님의 생명을 공급받아야 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라고 했다. 여기에서 성도란 하나님 안에 살며 또한 세상에서 산다는 말이다. 성도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지만, 주민등록은 세상에 있다. 성도는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성도는 구원받은 데서 끝나지 않고, 구원받는 동시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준행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이 성화이다. 구원은 주님의 전적인 주권이고 은총이지만, 성화는 나의 몫이다. 그렇다고 성화는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만 가능하다.

데살로니가전서는 각 장마다 강림,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고 있다.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그의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살전 1:10),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살전 2:19),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살전 3:13),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 남아 있는 자도”(살전 4:15),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살전 5:23)라고 했다.

데살로니가후서는 전서의 후편으로, 바울이 A.D.52년경에 제 2차 선교 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기록했다.

데살로니가후서의 주제는 데살로니가전서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에 관한 말씀으로, 성도들의 바른 태도와 올바른 삶에 대한 말씀이다.

데살로니가후서를 쓰게 된 동기는 첫 번째 편지 이후, 데살로니가교회는 유대인들의 박해가 갈수록 심해져 성도들이 실망과 좌절

속에 빠져들고 있었다.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 바울의 갑작스러운 (suddenly) 재림을 즉각적인(promptly) 재림으로 둔갑시켰다. 성도들 중에는 이에 동요되어 가정과 직장을 팽개치고 게으름을 피우며 무위도식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한편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하였는데, 아직껏 오시지 않는 것을 보니 재림은 먼 이야기라며 아무렇게 사는 사람들도 나타났다. 바울은 그들의 잘못된 신앙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이 서신을 썼다.

데살로니가전서는 애정이 넘치는 어조라면, 후서는 엄격한 교훈조이다. 데살로니가전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도적같이 오신다고 하였는데, 후서에서는 그 전에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예고하고 있다.

서신의 내용은 그리스도의 재림(1장), 적 그리스도의 출현(2장), 그리스도인의 책임(3장)이다.

성경 66권의 주제는 크게 여섯으로 요약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으로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셨다.”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세워졌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다시 오신다.” 데살로니가전·후서의 주제는 성경 66권의 주제 중의 하나인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바울의 종말론이라고 할 수 있다.

필자가 《데살로니가전·후서에서 만난 복음》을 집필한 목적은 어느 시대보다도 재림에 대한 이단들이 많이 나타나서 재림에 대한 그릇된 말로 성도들을 미혹하고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기에, 예수님

이 언제 오실지라도 깨어 근신하여 기쁨으로 “주님, 오시옵소서
(Come, O Lord!; Maranatha)” 맞을 수 있는 종말 신앙, 재림 신
앙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에서다.

01 데살로니가전서 1:1~4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1. 바울은 데살로니가교회를 개척할 때 복음을 증언하였고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다(살전 1:1; 행 17:1~9). 바울로부터 복음의 내용과 복음 전파의 자세를 말해 보자.
2. 바울은 데살로니가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감사하고 있다(살전 1:2~3).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에 대해 말해 보자.
3. 데살로니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살전 1:4). 성도가 구원을 받은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말해 보자.

02 데살로니가전서 1:5~10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1. 바울은 성령의 능력과 큰 확신으로 복음을 전했다(살전 1:5). 그렇다면 어떤 자세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를 말해 보자.
2. 그들은 환난 중에도 기쁨으로 복음을 받았다(살전 1:6~7). 그렇다면 어떤 자세로 복음을 받아야 하는가를 말해 보자.
3. 그들은 환난과 박해를 받으면서도 복음을 전했다(살전 1:8). 그렇다면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하는가를 말해 보자.
4. 데살로니가교회의 아름다운 소식이 널리 퍼졌다(살전 1:9~10). 그들의 믿음의 영향력에 대해 말해 보자.

03 데살로니가전서 2:1~16

복음을 부탁받았으니

1. 바울은 하나님을 힘입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복음을 전했다(살전 2:1~5). 복음의 청지기로서의 자세를 말해 보자.
2. 바울은 유모와 아버지가 되어 그들을 섬겼다(살전 2:6~12). 유모와 아버지가 되어 섬긴 바울로부터 배운 바를 말해 보자.
3. 데살로니가교회는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살전 2:13~14). 그렇다면 나는 어떤 자세로 말씀을 받아야 하는가를 말해 보자.

04 데살로니가전서 2:17~20, 3:1~13

부족한 믿음의 보충하라

1. 바울은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데살로니가교회 성도들을 소망, 기쁨, 자랑, 영광이라고 했다(살전 2:17~20). 양들을 사랑하는 바울로부터 배운 바를 말해 보자.
2. 바울은 데살로니가교회에 믿음을 굳게 하기 위해 디모데를 보냈다(살전 3:1~9). 믿음을 굳게 할 수 있는 법을 말해 보자(요 15:5; 골 2:6~7).
3. 바울은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흠이 없기를 원했다(살전 3:11~13)? 어떻게 흠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는가를 말해 보자(참조, 빌 3:13~14).

05 데살로니가전서 4:1~12

거룩하라

1. 바울은 거룩하라고 했다(살전 4:1~8). 거룩한 성도가 좇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고, 구체적으로 행해야 할 거룩한 삶을 말해 보자.
2. 데살로니가교회는 서로 사랑했다(살전 4:9~10). 형제 사랑의 중요성을 말해 보자.
3. 성도는 자기 손으로 힘써서 일을 해야 한다(살전 4:11~12). 노동의 중요성에 대해 말해 보자.

06 데살로니가전서 4:13~18, 5:1~11

깨어 근신하라

1.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은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생명의 부활로 나타난다(살전 4:13~18). 이 사실이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지를 말해 보자.
2. 주의 날이 도적 같이 온다(살전 5:1~11).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말해 보자.

07 데살로니가전서 5:12~28

범사에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다

1. 주안에서 수고하고, 다스리며, 권하는 지도자들을 귀히 여겨야 한다(살전 5:12~13). 왜 그래야 하는가를 말해 보자.
2. 규모 없는 자, 마음이 약한 자, 힘이 없는 자들을 도울 때 인내해야 한다(살전 5:14~16). 인내의 중요성을 말해 보자.
3. 성도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한다(살전 5:16~18). 왜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가 말해 보자.
4.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한다(살전 5:19~28).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뜻과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 있는가를 말해 보자.